

인터뷰-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강봉원(사학 74) 동문

11



좋아하는 일을 하는 강 동문의 눈빛은 매시간 맑게 빛났다.

(사진=고도희 기자)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 “융통성 있는 중재자 되겠다”

고도희 기자 kdhistory@khu.ac.kr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녹진한 여름날, 경주대학교에 있는 강봉원 동문(사학 74)의 연구실을 찾았다. 연구실 곳곳 그가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가득했다. 고고학 분야에서 이름을 빛내는 강봉원 동문은 깊은 학문적 지식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강 동문은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현재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 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경주대 문화재학과 특임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위원장 취임 소감과 함께 끊임없이 자신의 분야를 탐구하며 전진하는 그의 동기에 대해 알아봤다.

고고학의 길을 걷게 된 계기

사학과 재학생이었던 강 동문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학생이었다. 열정 넘치는 대학생이었던 그는 교생 실습 때문에 찾은 서점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강 동문은 “고고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입학했다”며 과거를 회상

했다. 그러나 “제대 후 교생 실습에서 불교 전파와 관련된 주제로 연구 수업을 대표로 담당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방문했던 광화문 외국 서점에서 우연히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에 관한 내용이 담긴 책을 발견했다”고 답했다. 고고학과 인연이 시작된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에 통치기구인 임나일본부를 세워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설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 학설이다. 임나일본부설의 주 배경이 된 곳이 가야였기에 강 동문은 이에 관한 오류를 풀어나고자 가야사를 고고학적으로 접근해 김해 패총(貝塚)을 연구했다. 김해는 일제가 임나일본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목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 동문이 가졌던 역사학에 대한 열망은 자연스럽게 고고학으로 옮겨갔다.

역사학은 주로 문서와 기록을 분석해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고,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을 통해 옛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고학을 역사학의 보조 혹은 하위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시선에

강 동문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고고학의 입장에서 오히려 역사학이 보조학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학과 고고학은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장 취임과 유연한 중재자 역할

지난 5월 1일, 강 동문은 문화재위원회 전체를 이끄는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위원회는 1962년에 설립된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로 총 9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에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현상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한다.

강 동문은 위원장 선출 전에도 위원 활동 경험이 있는 만큼 위원장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 소감에 대해서 그는 “장을 맡는 것이 편하지는 않다. 임기 동안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없다.”며 입을 열었다. 강 동문은 “다만 문화재와 주민들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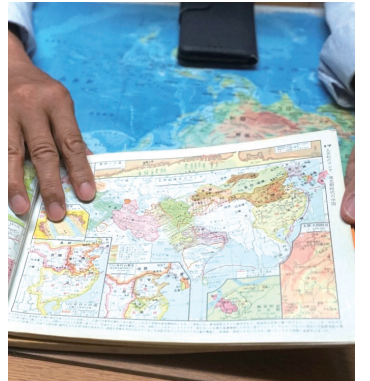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답했다.

강 동문은 현대인과 역사적 유물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람 나고 문화재 낳지 문화재 나고 사람 낳냐”며 “개발이 잦아지는 만큼 문화재 발굴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많지만, ‘타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아파트나 열차 건설이 공익사업이듯, 모두 사람을 위한 일이라 문화재로 갑질하는 일은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화재 보존사업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강 동문은 “어떤 것에 특별한 가치를 두면 그것 자체가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자세를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의 답변은 흔히 문화재 관련 일을 하면 유물과 유적만을 중시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재미를 쫓는 ‘독고다이’

혹자는 강 동문을 ‘독고다이(흔



강 동문이 ‘임나’ 표기로 고고학적 탐구심을 일으킨 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고도희 기자)

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라 부른다. 선학들의 연구를 비판하고 지적하며 그의 집념을 곳곳이 지켜나가기 때문이다. ‘비판’, ‘재검토’는 논문 제목의 단골 키워드이다. 그가 독고다이라 자신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본인의 일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재미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다. 그는 “1년 중 설날과 추석은 제외한 363일을 연구실에서 보낸다”며 “이 또한 재미있고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일과 그 동력에 대해 말하는 강 동문의 눈빛은 인터뷰 중 가장 빛났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인 동시에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 강 동문은 평생을 연구에 열중했다. 어떻게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꾸준히 공부하다 보니 위원장 자리에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학자로서 우직함이 느껴지는 답변이었다. 위원장 임명은 그의 학문적 열정과 경험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때문에 강 동문의 논문 집필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정년퇴임 후 여유롭게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법도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탐구 주제를 찾고 기존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로 그는 “계제되지 않은 논문도 많지만 이런 경험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한 논문을 쓰다 보면 가지치기가 된다.”며 이를 “논문 고물이 떨어진다”고 표현했다. 논문 고물이 모여 또 다른 논문이 탄생하는 것이다. 강 동문의 논문에 신라 시대와 암각화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 동문의 별명처럼 그는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재미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쫓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도 조언했다.